1.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 진행현황

가. 종합체육관

- 1) 시공업체 선정 : (주)대우건설 선정[2014년 12월 5일]
- 2) 감리업체 선정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2015년 1월 8일]
- 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015년 1월 21일]
- 4) 기공식 개최 [2015년 3월 10일]

나. 공과대학관

- 1) 신축공학관 평면배치(안) 검토 요청 : 2015년 1월 29일
- 2) 공과대학 의견 접수 : 2015년 2월 25일

다. 외국어대학관

- 1) 외국어대학관 신축, 개보수 평면배치(안) 검토 요청 : 2015년 2월 9일
- 2) 외국어대학 의견 접수 : 2015년 3월 6일

2. 향후 추진 일정

가. 종합체육관 : 2017년 1월 초 완공예정

나. 공과대학관

- 1) 공과대학 의견 협의 완료 시 후속 절차 착수 예정

다. 외국어대학관

- 1) 교수연구동 신축 : 중간 및 계획설계 진행
- 2) 현) 외국어대학관 개, 보수 : 외국어대학 구성원 의견 접수 후 후속 절차 착수 예정

3. 질의응답

[위원 상호간 소개 및 건설사업단장 모두발언]

(Q1) 현재 진행중인 종합체육관 공사는 중단 없이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인지 질의

(A1) 2017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중단 없이 공사 진행 가능함

(Q2) 공과대학관 착공 가능한 시점

(A2) 공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다보니, 기 승인된 공과대학관과 층수가 상이하게 설계가 수정되었음.

현재 그 후속작업으로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 배치 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기존 승인(안)과 변경사항이 있어 이의 승인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임. 변경(안)의 승인 후 공과대학에서는 각 모듈에 적

합하게 사용자를 배치하고 실별 유틸리티(전기, 기계설비 등)를 반영한 안을 작성하여 건설사업단에 전달하면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공이 가능함

(Q3) 입면 확정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

(A3)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7~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함

(Q4) 현재 계획중인 캠퍼스마스터플랜 착수 순서

(A4) 동서의학관을 포함한 신축건물 완료 후 (현)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 등의 개보수 착수 가능함. 개보수 건물의 설계에 한해서는 신축공사의 설계완료 후 착수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미리 설계할 경우 향후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큼

(Q5) 동서의학과는 신입생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동서의학관은 대학원을 위한 건물인지 질의

(A5) 동서의학관은 강의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신축 후 현재 타 단과대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서의학대학원 공간이 이전할 예정임. 대학원만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절반이상 축소된 약 1,000평 건물로 신축할 계획임

(Q6) 생명과학대학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개보수가 본격화 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국제경영대학관을 생명과학대학에서 활용하는 계획도 건물 이원화 및 보행동선 위험으로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음

(A6) 국제경영대학관을 생명과학대학에서 활용하는 계획은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하여 계획한 안이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제경영대학관으로 진출입하는 보행자 동선은 안전을 위해 원래 계획된 쪽을 활용하여 구성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Q7) 종합체육관 신축공사로 인해 생명과학대학은 주차장 문제,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대학의 재정상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보수공사 조차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과학대학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함/ 생명과학대학관의 휴식공간 부재, 외벽 타일 탈락 등으로 인해 많은 구성원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

(A7) 소음발생 관련 종합체육관을 본격 착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초기 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겠음. 얼마 전 생명과학대학 학장, 행정실장, 학생회 등과 미팅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음. 현재 생명과학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서울캠퍼스를 포함한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등 Space21사업 관련 여타 구성원 또한 생명과학대학 구성원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사료됨/향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은 건설사업단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나 일정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당부드림/ 생명과학대학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냉난방시스템개선과 관련한 회의를 미래정책원, 생명과학대, 사무처 관리팀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개보수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임

[정리발언]

생명과학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되는 건물 전체 냉난방 개선공사는 작년부터 학장님 요청으로 수차례 회의 및 대학본부에서도 현장조사를 마친 상황임. 생명과학대학 개보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안 중 공사 범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진행 할 계획임. 아울러, 누수발생 설비배관 교체, 냉난방 개선 공사는 선 시행하되 추후 전체 개보수 공사시 이중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안을 고민 중임.

<회의종료>